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이 경 순[‡]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연 영 란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측변인을 파악하고, 중재효과를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근거중심의 실무프로그램 개발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0개의 데이터베이스(PubMed, CINAHL,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회 도서관, 네이버 전문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학술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DBpia, KoreaMed)에서 검색한 482편의 연구 중 38편의 연구를 최종 선택하였으며, 8편의 중재연구를 메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62개 변인이 검색되었으며 1편 이상의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54개였다. 이 중 월 가계소득,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 출신국, 사회적 지지, 자녀 수, 결혼기간, 부부의 연령차, 결혼만족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우울, 문화적응 유형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중재방법은 음악요법, 미술요법, 무용요법, 원예요법으로 분류되었으며,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중재의 효과크기는 $-0.83(95\% \text{ CI: } -1.34, -0.32)$ 으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연구 편수가 적고 무작위 순수 실험설계가 거의 없는 등 연구의 질이 높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주요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중재법의 개발과 함께 질 높은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추후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예측변인, 메타분석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경순,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Tel: 02-3399-1590, E-mail: leeks@syu.ac.kr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세계는 이민의 시대를 맞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1)에 의하면 전 세계 이민자수는 지난 6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엔 세계인구 70억 명의 약 3%인 2억1400만 명이 이주민이었다. 지난 20년과 똑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2050년에는 이민자수가 4억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법무부(2011) 통계에 따르면 2001년 57만 명이던 체류 외국인이 2011년 10월 현재 140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2.5배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9.2%인 450여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 2만 5182명에서 2011년 현재 14만 3687명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5.7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이러한 변화는 단일혈통과 공통의 문화를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 온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단순한 외국 인력 수급의 차원을 넘어 결혼, 가족, 교육, 건강 및 의료, 복지 등 궁극적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내국인들보다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증가한다(김현실, 2011; Bhugra, 2003; Dinesh, & Peter, 2001; Mauro, Mariola, Maria, & Josep, 2005).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국제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라는 주류사회와 다문화가족에서의 문화적응이라

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특별한 과정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결혼 전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권명희, 2010). 또한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는 자녀양육 문제(김현경, 2009; 남상아, 백지숙, 2011; 송선화, 안효자, 2011; 신순식, 2010)나 가족불화의 원인(김순이, 2010; 박경동, 2007)이 되어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들의 건강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재연구들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한다. 메타분석은 매우 효과적인 근거의 통합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통계 방법으로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이다(송혜향,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 통합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화적응 예측변인들을 파악하고, 중재효과를 메타 분석함으로써 향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한국 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방 법

분석대상

본 연구는 연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2011년 8월까지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검색 기간은 2011년 9월 2일부터 10월2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선정기준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이며 질적연구(사례연구, 면담에 의한 서술연구), 메타 분석 및 임상시험연구는 제외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는 국외의 경우 Pubmed, CINAHL이었고, 국내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회 도서관, 네이버 전문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학술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DBpia, KoreaMed이었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female marriage immigrant, immigrant spouses, marriage immigrant, marriage migrants women, marriage migration, married immigrant women, migrant brides, migrant women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on stress, acculturative stress, cultural acceptance stress, cultural adaption stress, cultural adjustment stress, cultural stress, stress for cultural adaption, stress for

understanding and adjustment in culture 등이며,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된 연구로 제한하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과 선별의 전 과정은 2명의 연구자가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평가자간 일치도를 3회에 걸쳐 교차 검토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Cohen's κ 로 확인하였다. 두 연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자료선정 또는 제외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1차 문헌검색 결과 총 48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340편이 중복 제거되어 14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Cohen's $\kappa = .90$). 그 후 논문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연구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연구 37편,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닌 연구 49편 등 총 86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56편의 논문을 2차 선정하였다(Cohen's $\kappa = .87$). 마지막으로 56편의 전문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연구 5편,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닌 연구 11편 등 총 16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편의 논문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연구로 선정하였다(Cohen's $\kappa = .93$).

자료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은 코딩표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저자, 연구 발표연도, 연구의 출처, 연구설계, 연구지역, 표본 수, 측정도구, 통계치 등을 분석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예측변인은 선행연구(안준희, 조정희, 2011;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을 기초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가족구조적, 심리문화적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실험연구에서 대상자 수와 중재의 종류, 중재기간, 중재빈도 및 연구의 질평가를 시행하였다. 질적 평가 항목은 선행연구(민영춘, 오복자, 2011)와 Cochrane Library (2011)의 체계적 고찰지침에 근거하여 무작위 유무, 조사자 맹검, 위대조군 설정, 탈락자 사유 설명, 대상자 맹검 여부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혹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중재연구의 효과크기 통계적 분석은 Cochrane Library의 RevMan 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8편의 연구 중 실험중재 연구가 아닌 연구 27편,

대조군이 없는 연구 2편, 측정도구의 표준편차가 없는 연구 1편을 제외하고 총 8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 측정치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가 다른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평균차이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 SMDs)를 사용하여 효과크기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를 구하였다. 효과의 크기는 Cohen(1998)의 효과 해석에 따라 0.20 정도면 작고, 0.50 정도면 보통, 0.80이상이면 크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값에서 실험 전 값을 뺀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크기가 음의 값으로 나올수록 중재프로그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95% 신뢰구간으로 효과크기의 통계적인 의미를 판단하였고 유의수준은 5%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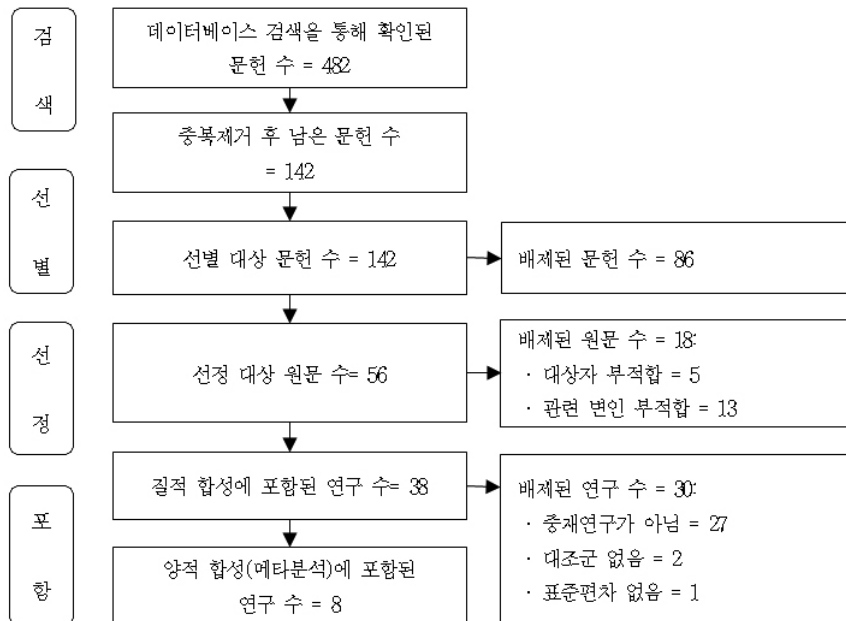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선정 흐름도

다음으로 각 연구의 유효크기들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때 연구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iggins의 I^2 으로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동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동질하지 않은 경우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은 Funnel plot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논문의 특성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총 38편으로, 자료선정과정은 그림1과 같다. 출판년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8편 중 2007년 이전의 연구는 없었으며,

표 1.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논문의 특성(N=38)

특성	구분	N(%)
발표연도	2007 이전	0(0.0)
	2007	4(10.5)
	2008	3(7.9)
	2009	9(23.7)
	2010	16(42.1)
	2011	6(15.8)
연구출처	학위논문	24(63.2)
	학회지논문	14(36.8)
연구설계	비실험연구	
	서술적연구	16(42.1)
	상관연구	9(23.7)
	인과관계연구	2(5.3)
	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11(28.9)	
연구지역	서울과 경기도	14(36.8)
	충청도와 강원도	7(18.4)
	경상도와 전라도	10(26.4)
	전국	1(2.6)
	서울없음	6(15.8)
대상자수	<100	12(31.5)
	100-199	16(42.1)
	200-299	5(13.2)
	≥300	5(13.2)
측정도구	ASSIS	35(92.1)
	ASS	1(2.6)
	연구자 개발	2(5.3)

ASSIS=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Acculturation Stress Scale

2007-2009년에 게재된 연구가 42.1%, 2010년 이후 연구가 57.9%이었다. 연구출처는 학위논문이 63.2%이었고 학회지 발표 논문이 36.8%이었으며, 연구설계는 비실험연구가 71.1%, 실험연구가 28.9% 이었고 질적연구나 개념분석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연구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36.9%, 충청도와 강원도가 18.4%, 경상도와 전라도가 26.3%, 전국에서 실시된 연구가 2.6%이었으며 기술이 없거나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연구가 15.8%이었다. 측정도구는 대부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를 사용하였으며, 총 연구 참여자 수는 5,571명이었다(표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예측변인

10개의 DB에서 검색한 482편의 연구에서 38편 연구가 최종 선택되었으며 62개의 변인이 분석되었다. 총 62개 변인 중 1편 이상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54개였으며, 이 중 4편 이상의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한 예측변인은 17개였다. 17개 주요변인 중 반 이상의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월 가계소득,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 출신국, 사회적 지지, 자녀 수, 결혼기간, 부부의 연령차, 결혼만족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우울, 문화적응유형으로 12개였다(표 2).

표 2. 고찰된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변인(N=38)

구분	변인	합계(†, %)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력	23(11, 47.8)
	연령	22(8, 36.4)
	한국어 능력	17(13, 76.5)
	한국 거주기간	14(7, 50.0)
	직업 유무	12(5, 41.7)
	출신국	10(7, 70.0)
	결혼기간	8(4, 50.0)
가족구조적 변인	월 가계소득	22(17, 77.3)
	가족구조	12(4, 33.3)
	자녀 수	9(5, 55.6)
	배우자의 교육수준	9(5, 55.6)
	부부의 연령차	7(5, 71.4)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5(5, 100.0)
	사회적 지지	9(6, 66.7)
심리문화적 변인	결혼만족도	7(7, 100.0)
	우울	5(5, 100.0)
	문화적응 유형	4(4, 100.0)

† 통계적으로 유의한 논문의 수

중재연구의 효과크기와 유의성 검증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38편의 연구논문 중에서 유효크기 분석이 가능한 8편을 대상으로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역 복지관이나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글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구분되었다. 대상자수는 실험군 총 126명으로 평균 15.8명, 대조군 총 115명으로 평균

14.3명이었고, 중재의 종류는 음악요법 2편, 미술요법 2편, 원예요법 2편, 무용요법 2편이었다. 평균 중재적용 횟수는 15.9회, 평균 회당 중재시간은 81.7분이었다(표3). 중재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는 조사자 맹검 및 위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은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6편이었다. 또한 대상자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5편 이었고, 탈락자 사유 설명이 없는 연구가 4편으로 연구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표4).

표 3. 효과크기 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의 특성(N=8)

연구	중재	대상자수(N)		회기당 소요시간(분)	주기 (주당)	회기 (회)
		실험군	대조군			
권유경(2009)	미술요법	8	8	60	1-2	10
김미경(2010)	미술요법	6	6	90	2	10
김지현(2011)	음악요법	8	7	90	1	8
이문숙, 이형일, 이정주, 윤민숙, 김상현(2011)	무용요법	24	30	서술없음	1	15
이선자, 이상미, 서정근(2010)	원예요법	7	6	서술없음	1	24
장화선(2010)	무용요법	17	15	70	1	20
최문희(2009)	음악요법	8	7	90	2	16
하윤주(2011)	원예요법	34	30	90	2	24

표 4. 선정된 연구의 방법론적 질평가

평가항목	구분	연구수(%)
무작위 유무	예	2(25.0)
	아니오	6(75.0)
조사자 맹검	예	0(0.0)
	아니오	8(100.0)
대상자 맹검 여부	예	1(12.5)
	아니오	7(87.5)
위대조군 설정	예	0(0.0)
	아니오	8(100.0)
탈락자 사유 설명	예	3(37.5)
	아니오	1(12.5)
	해당없음	4(50.0)

효과크기는 중재 분석에 사용된 연구논문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I^2=62.0\%$, $p =.010$),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는 $-0.83(95\% \text{ CI: } -1.34, -0.32, p =.001)$ 으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연구에서는 권유경(2009)의 중재연구가 가

장 효과크기(-3.50)가 컸고 중재방법에서는 미술요법이 가장 효과크기(-1.89)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출판편향을 검정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삼각형 모양 안의 가운데 점선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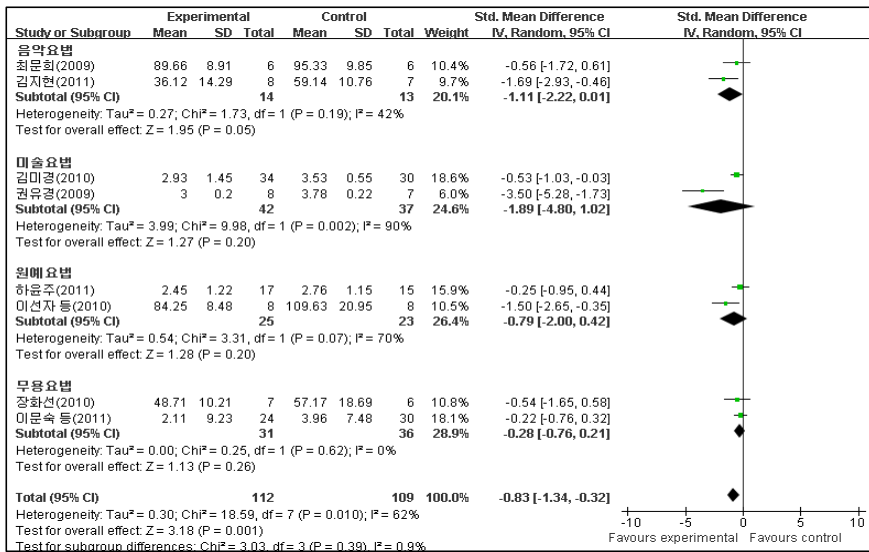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적용한 중재의 효과크기 Forest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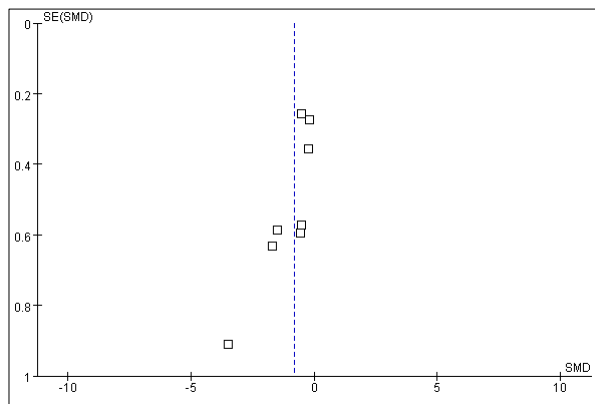


그림 3. 효과크기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들의 출판편향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적용한 중재연구의 종류 및 효과를 규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무적용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선정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방법, 예측변인의 유형과 중재연구의 종류, 기간 및 빈도를 확인하고 중재연구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출판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38편 연구 모두가 2007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만 22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개인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정 반응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상실,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의 위축 등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Searle & Ward, 1990)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자녀양육문제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국가적으로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8편 분석논문의 연구대상자 수를 보면 최소 8명에서 최대 360명으로 평균 146.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5편이었다. 그러나 중재연구의 경우 평균 대상자수는 15.1명으로 중재연구의 효과성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38편의 연구 중 35편에서 ASSIS를 번역하여 사용했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ASSIS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국제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개발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는 도구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핵심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예측변인으로서 조사된 총 62개 변인 중 주요 예측변인은 월 가계소득,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 출신국, 사회적 지지, 자녀 수, 결혼기간, 부부의 연령차, 결혼만족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우울, 문화적응유형으로 12개였다. 월 가계소득은 38편의 논문 중 22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으며 그 중 17편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17편의 연구 중 14편(82.4%)의 연구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소래(1997)의 연구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유성(2004)의 연구 등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17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으며 그 중 13편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중 11편(84.6%)의 연구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했다. 이는 언어사용

능력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Nwadiora와 McAdoo(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12개의 예측요인들 중 근거중심실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정 가능한 변수는 결혼만족도, 문화적응 유형,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우울, 한국어 능력으로 앞으로 이들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한 변인이라고 알려졌으나 50% 미만의 연구에서만 유의하다고 나온 변인은 가족유형, 배우자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유무, 학력이었다. 학력은 가장 많은 연구에서 측정된 예측변인으로 23편의 연구에서 조사되었지만 11편(47.8%)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가장 많이 측정된 변수는 연령이었는데 22편의 연구에서 조사되었으며 그 중 8편(36.4%)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직업은 12편의 연구 중 5편(41.7%)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는데 William과 Berry(1991)가 직업이 있을 때 높은 수입과 직업적 배경 등이 이주사회에 대처하도록 하는 자원이 되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고 한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직업 유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반면 다른 변인들보다 적게 조사된 변인은 우울, 문화적응 유형,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이다. 이 변인들은 각각 5편의 연구에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논문에서 10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적 변인이나 심리사

회적 변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지속적인 추후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적용한 중재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중재방법은 음악요법, 미술요법, 무용요법, 원예요법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재의 효과크기는 $-0.83(95\% \text{ CI: } -1.34, -0.32, p = .001)$ 으로 보통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Huey와 Polo(2008)는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5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중재가 문화적응을 낮추는데 중간정도의 효과($0.44, 95\% \text{ CI: } 0.32, 0.56, p = .001$)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중재 프로그램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편수가 적고 조사자 맹검이나 위대조군이 설정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등 연구의 질이 높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해석시 주의하여야 하며, 추후 잘 설계된 질 높은 후속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나타나는 차이가 순수 중재 효과에 의한 것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정적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중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수집되는 연구만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측변인 및 중재연구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명희 (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74-2197.
- 권유경 (2009).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10). 단기집단미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순이 (2010).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안산시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1).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 229-254.
-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 188-198.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노유성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춘, 오복자 (2011). 암환자의 통증에 적용한 중재효과와 메타분석. 중앙간호학회지, 11, 83-92.
-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 한국의 광주·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1). 2011년 11월 통계월보. 경기: 법무부.
- 송선화, 안효자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 167-179.
- 송혜향 (2006).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분석법. 서울: 청문각.
- 신순식 (201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녀를 위한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幼兒教育研究, 30, 175-193.
- 안준희, 조정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137-176.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137-168.
- 이미승, 김갑숙 (2008).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4), 123-143.
- 이선자, 이상미, 서정근 (2010).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3(4), 15-22.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화선 (2010). 결혼이주여성의 무용 참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신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문희 (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2). 2011년 혼인 이혼 통계. 대전: 통계청.
- 하윤주 (2011). 원예요법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 Scand.*, 108(Suppl. 418), 67-72.
- Cohen, J. (199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 Dinesh, B., & Peter, J. (2001).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7, 216-221.
- Huey S J, & Polo A J.(2008). Evidence based

- psychosocial treatments for ethnic minority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1), 262-301.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World migration report 2011. Retrieved December 11, 2011, from http://publications.iom.int/bookstore/free/WMR2011_English.pdf.
- Library, C. (2011).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Retrieved March 18, 2011, from <http://www.cochrane.org/search/site/risk%20of%20bias>
- Mauro, G. C., Mariola, B., Maria, C. H., & Josep, M. H. (2005). Migration and mental health in Europe (the state of the mental health in Europe working group: appendix 1). *Clinical Practice and Epidemiology in Mental Health*, 1(13), 1-16.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122), 477-487.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 632-641.

원고접수일: 2012년 5월 3일

게재결정일: 2012년 7월 27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 Vol. 17, No. 3, 697 - 709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yung-Soon Lee
Sahmyook University

Young-Ran Yeu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evant predictors and to analyze the effect size of intervention studies in reference to acculturative stress. Electronic literature searches are conducted for PubMed, CINAHL, RISS, Naver academic, KISS, NDSL, Nanet, Kci, DBpia and KoreaMed. Of 482 studies identified, 38 me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8 are used to estimate the effect size. A total of 62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ssible predictors for acculturative stress. Of these, 54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e 12 factors that are identified most often as predictors are monthly household income, ability to speak Korean,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nationality, social support, number of children, duration of marriage, marital satisfaction, couple's age difference, spouse and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type of acculturation. Types of intervention include art therapy, dance therapy, horticultural therapy, and music therapy. The effect size using the random model effect is high ($d = .83$, 95% CI: -1.34-0.32), even though the numbers of intervention studies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e very rare. This study is an initial step in developing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next steps will be to construct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relevant variable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and to develop an actual intervention program.

Keywords: Marriage immigrant woman, acculturative stress, predictor, meta-analysis